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6. 10. 2.(금) 07:00 ~ 2026. 10. 5.(월) 22:00
- 상담건수: 1,343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3명)

-프로그램명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어 자랑스럽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2주 동안 중계를 위해 애써 준 아나운서와 해설위원들 덕분에 아시안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동안 좋은 중계를 해주어 고맙고 수고 많았다.

○ 결방 제언(15명)

-프로그램명 : 주말드라마 「사랑이 온다」

-방송일시 : 2026. 10. 3.(토) 2TV (20:00-21:20)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아시안게임 중계로 결방되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스포츠 중계가 이어지니 불편함이 크다. 정규 프로그램의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6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343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724	119	-	-	500	1,343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623	491	28	-	2	199	1,343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31	1,112	-	1,343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088	-	73	182	1,343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주말드라마 「사랑이 온다」 - 결방 제언 ○ 「살림하는 남자들」 - 편성 제언 ○ 「굿모닝 대한민국」 - 프로그램 폐지 반대 【보 도】 ○ 「KBS 뉴스광장」 - 우리말 사용 제언 【스포츠】 ○ 「여기는 나고야」 - 진행자 제언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 방송 호평 【연예·오락】 ○ 「신상출시 편스토랑」 - 출연자 호평 ○ 「1박 2일」 - 우리말 사용 제언 【라디오】 ○ 「정관용의 시사본부」 - 진행자 제언	【방 송】 ○ 주말드라마 「사랑이 온다」 - ‘편성 시간’ 문의 50건 ○ 「6시 내고향」 - ‘갈치와 수세미’ 연락처 문의 49건 ○ 「동네 한 바퀴」 - ‘영천한우숯불단지’ 연락처 문의 28건 ○ 「아침마당」 - ‘ARS 참여’ 문의 25건 ○ 「불후의 명곡」 - ‘방청’ 문의 24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39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3건 ○ 「수신료」 문의 5건 ○ 「주차」 문의 3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1건 ○ 「견학」 문의 1건 ○ 「인터넷 방송」 문의 1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82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결방 제언	○ 주말드라마 「사랑이 온다」 (15명) - 2026. 10. 3.(토) 2TV (20:00-21:20) -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아시안게임 중계로 결방되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스포츠 중계가 이어지니 불편함이 크다. 정규 프로그램의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편성 제언	○ 「살림하는 남자들」 (3명) - 2026. 10. 3.(토) 2TV (22:55-24:15) - 방송 시간이 너무 늦어 끝까지 시청하지 못하고 잠이 들 때가 많다. 차라리 드라마와 편성을 바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방송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프로그램 폐지 반대	○ 「굿모닝 대한민국」 (3명) - 2024. 12. 7.~2026. 10. 2.(수-금) 2TV 방송. (총 219부작) - 요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유익한 아침 프로그램이었다. 아직 후속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종영 소식이 참 아쉽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보 도]	
우리말 사용 제언	○ 「KBS 뉴스광장」 “천재 소녀’ 유도, ‘신성’ 복싱 나란히 은메달’(1명) - 2026. 10. 3.(토) 1TV (06:00-07:50) - 뉴스에서 ‘젼잘싸’라는 자막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 누구보다 올바른 언어 사용에 앞장서야 할 KBS에서 이러한 줄임말을 태연하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른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스포츠]	
진행자 제언	○ 「여기는 나고야」 ‘[양궁] 준결승~결승 여자 리커브 단체, 혼성 리커브’(1명) - 2026. 10. 2.(금) 2TV (08:50-13:00) - 중국이 동메달을 획득하자 기보배 해설위원이 ‘우리 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금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의 해설이라 더욱 당황스러웠다. 중계에서는 신중히 발언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방송 호평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3명) - 우리나라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어 자랑스럽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2주 동안 중계를 위해 애써 준 아나운서와 해설위원들 덕분에 아시안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동안 좋은 중계를 해주어 고맙고 수고 많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연 예 · 오 략]	
출연자 호평	○ 「신상출시 편스토랑」 (1명) - 2026. 10. 1.(목) 2TV (20:40-22:10) - 지승현 씨와 엄마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졌고, 오랜만에 요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웃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도 보기 좋아 편안하게 시청했다. ※의견제시자 : 익명
우리말 사용 제언	○ 「1박 2일」 (1명) - 2026. 10. 4.(일) 2TV (18:10-20:00) - 곧 한글날을 앞두고 있는데 방송에서 복숭아를 ‘딱복’이라고 표현한 모습이 다소 아쉽다. 아이들도 시청하는 방송인 만큼 바른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한다.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라 디 오]	
진행자 제언	○ 「정관용의 시사본부」 (2명) - 2026. 10. 3.(토) 1R (12:10-13:58) - 진행자가 반복적으로 여당 패널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 패널의 발언을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반박하는 듯한 진행은 자제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패널의 의견을 고르게 듣는 중립적인 진행을 해 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